

베네딕트는 문화를 과학적인 방법에 의거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학자였다. 그녀의 일본연구가 오늘날까지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연구방법론과 그 성과에 대한 평가 이전에 바로 적국에 대한 일본연구에서조차도 그녀 자신의 연구자세가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은이는 인간의 행동이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문화적 토대 위에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문화의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베네딕트가 이문화(異文化)를 연구하는 기본적인 시각이기도 하지만, 그런 시각은 《국화와 칼》(김윤식 외, 을유문화사)의 기본이 된 이 책에서도 그대로 투영돼 있다.

‘책무체계’와 ‘자기단련’ 과정에 주목해

베네딕트는 《일본인의 행동패턴》에서 일본인들의 행동양식을 규정하는 특징으로 ‘책무체계’와 ‘자기단련’ 과정을 주목한 후, 이를 통해 일본인의 행동양식이나 윤리기준을 이해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일본인의 책무체계를 규정하는 것으로는 ‘은’ (恩), ‘의무’ (義務), ‘의리’ (義理)를 강조하고, 이것을 일본인들의 윤리규범으로서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천황의 이름으로 선포한 ‘교육칙어’ (勅語)와 ‘군인칙유’ (勅諭)였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책무체계는 필연적으로 자기부정을 요구하며, 이런 자기부정을 생활습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기단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자기단련은 끊임없는 정신수양을 통해 이뤄지지만, 그 수양은 “속죄를 위한 고행”이 아니라 인생의 폭을 넓히고 인생을 좀더 즐기 위한 과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엄격한 자기단련은 정신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권태를 느끼거나 자극을 갈구하게 되고, 때로는 독선과 고정관념에 빠지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성향은 일본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독선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모욕을 가하게 되면, 일본사회는 “원한을 복수하기 위한 낭인”들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새로운 일본연구 관점은 제시하지 못해

베네딕트는 이 연구리포트로 통해 일본인들의 윤리기준과 행동패턴을 규명한다. 이로써 미국이 어떻게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지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이 베네딕트의 새로운 연구가 아닐까 하고 기대한다면 조금은 실망스러울 것이다. 대부분의 내용이 《국화와 칼》에 흡수돼 있고 특별히 일본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책은 베네딕트가 초기의 일본연구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베네딕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적지 않

이 책은 일본인들의 행동양식을 규정하는 특징으로 ‘책무체계’와 ‘자기단련’ 과정을 주목한 후, 이를 통해 일본인의 행동양식이나 윤리기준을 분석한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지 못해 아쉬움도 남는다. 이 책이 《국화와 칼》의 밑거름이 된 연구리포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초기 베네딕트의 연구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책갈피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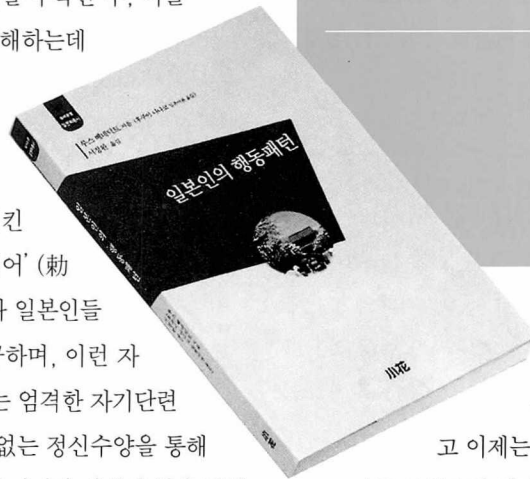
《일본인의 행동패턴》

일본인들의 윤리기준과 문화적 배경 탐색해

루스 베네딕트 지음 | 서정완 옮김

소화/B6/288면/6000원

김필동 | 세명대 일본학과 교수



으리라 생각한다.

이 책을 번역한 서정완 교수는 《국화와 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퇴보를 그만하고 이제는 전진하는 진지하고 냉철한 일본학연구가 자리를 잡았으면 한다. 사회적 유행이라든지 정치적 동기가 발동하는, 또는 상업적 손익계산이 모습을 보이는 그런 화려한 연구의 탈을 쓴 저널리즘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일본을 냉철하게 직시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진실한 갈구에 의한 ‘연구’가 자리를 잡았으면 하고 간절히 바란다”고 언급하고 있다. 일본연구자의 한사람으로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지만, 이 책을 번역한 의미로서는 조금은 지나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책은 베네딕트의 새로운 일본연구가 아닌 《국화와 칼》의 밑거름이 된 연구리포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

김필동 교수는 일본 히토츠바시 대학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세명대 일어일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근대일본의 출발》 《리액션의 예술 일본대중문화》 《21세기의 길목에서 생각하는 전후 일본》 등이 있다.

《국화와 칼》은 루스 베네딕트가 미 국무부의 의뢰를 받아 2년간의 자료수집과 연구 끝에 내놓은 일본 문화 연구서로 문화인류학의 고전으로 꼽힌다. 지은이는 ‘국화’와 ‘칼’로 상징되는 일본문화의 심층을 해부했다. ‘일본 문화의 틀’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은 일본인의 의면적 행동과 내면적 사고방식,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전쟁을 숭상하는 일본인의 모순된 가치관과 행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했다.